

트럼프 “이란 48시간 내 호르무즈 안열면 발전소 초도화”

호르무즈 봉쇄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커지자 사실상 최후통첩 나선듯
이란, 美요구 수용 여부 미지수...해협 개방 놓고 군사충돌 확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에 해협 개방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도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맞대응해왔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들 나라는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시한을 제시하고 이란의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해협 개방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으로,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군사 행동을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중부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에 있는 지하 미사일 시설 등을 5천파운드(약 23t) 폭탄들로 타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던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대함 순항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기타 장비를 은밀히 저장하는 데 사용돼왔다는 것이 미군의 설명이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 능력을 약화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대이란 군사 압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강경 대응을 고수해온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협을 개방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경우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 등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란의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확대로 이어져 군사 충돌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란 폭격 현장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아라드에서 이란 미사일 직격탄을 맞은 현장을 이스라엘 보안군, 구조대, 구급대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구급대(Magen David Adom, MDA) 대변인에 따르면 75명이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PA=연합뉴스

홍콩매체 “한중 ‘지재권 이행위’ 재개 합의, 한한령 완화 신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홍콩 매체는 이것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콩 성도일보보는 21일 “지난해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한령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김정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윈타오 중국 상무부장·리리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난 것을 ‘최신 징후’로 지목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상무장관회의에서 상반

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 재개를 통해 중국 내 우리 음악,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중 지식재산권 이행위는 2021년 만들어진 한중 관계가 비교적 양호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중국이 당시 한한령을 완화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식재산권 이행위는 정식 회의를 열지 못했고 별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다.

성도일보는 “이제 양국이 위원회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사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할 뜻이 있다는 각종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고, 한국 언론은 한국 4대 기획사가 올해 중국에서 대형 K팝 공연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日, 北·中위협 등 대비 피난소 확충

지하철역·지하상가 등 대상

일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비해 민간 지하 시설을 ‘긴급 일시 피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케이이시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긴급 일시 피난시설은 미사일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1~2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뜻한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있는 긴급 일시 피난시설 수는 6만1천142곳이었는데, 이중 지하 시설은 4천233곳으로 6.9%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긴급 일시 피난시설의 대부분이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 등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피난소 지정에 협조할 경우 용적률 규제 완화,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피난시설 확보율을 산정할 때 기준을 기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모든 기초자치체가 인구 대비 피난시설을 100%를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자치체 중 약 20%는 피난시설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않는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쿄도 미나토구, 시부야구, 지요다구 등의 경우 낮에는 피난시설 확보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피난소 준비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중국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분석했다. /연합뉴스

인도 비만치료제 위고비 복제약 경쟁...8분의1 가격

주성분 특허 만료...50여개 브랜드 출시

세계 최대 복제약(제네릭) 생산국인 인도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주성분의 특허 만료로 위고비 가격의 8분의1 수준인 초저가 복제약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제약사 에리스 라이프사이언스는 전날 위고비 복제약 주성분을 자사 당뇨병 치료

제 ‘선데이’ 브랜드로 출시했다.

이 복제약의 가격은 최저 용량인 2mg 기준 월 1천200루피(약 2만700원)로 이는 원조 위고비의 12% 수준이다.

이 회사보다 더 큰 제약사인 닥터 레드스 래버토리스도 이날 위고비 복제약 ‘오베다’를 내놨다. 이 회사는 캐나다에서도 오는 5월까지 오베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올해 인도에서 약 40개 제약사가 50개 이상의 브랜드로 위고비 복제약을

출시할 것으로 제약시장 조사업체 파타락은 전망했다.

저가 복제약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도 제약사들은 위고비 복제약을 원조 제품보다 최소 50~6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인도 내 특허는 전날 기준으로 만료됐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 핵심 특허가 올 연말까지 중국·브라질·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주요 10개국에서 만료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